

# 민족 단합의 숭고한 경륜을 전하는 통일전선탑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의 쉼에는 통일전선탑이 세워져 있다.

탑이 세워진지는 어느덧 서른두해, 하지만 이 탑으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은 통일전선탑을 자주 찾는 것인가.

탑은 그리 크지 않아도 바로 이 탑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민족 단합의 사상과 경륜, 온 겨레를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그의 로고와 업적이 어리

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범죄적인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부동한 통일애국의 지,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을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아버지수령님

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와 겨레를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경력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넓은 도량에 이끌려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력사적인 련석회의를 가지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 력사적인 회합에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참가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에 따라 춤추는 리승만계열의 매국세력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

당, 사회단체들이 다 련석회의에 참가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력사적인 회합에서 북과 남의 대표들은 조성된 민족적적통일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여 견해와 행동의 완전한 일치를 이룩하였다.

참으로 4월남북련석회의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으로 길이 빛을 뿌리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남북련석회의와 쑥섬회의에 참가했던 각계층 남측 인사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애국적인 소행이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셨다.

주체72(1983)년 9월 6일 새로 건설된 《총성의 다리》 준공식에 나오시어 쑥섬사적을 몸소 발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75(1986)년 8월 26일 쑥섬사적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한 선성들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는 장사의 해설을 들으며 탑신의 뒤면에 새겨져있는 쑥섬회참가자들의 이름을 한

자두자 읽어보았다.

김규, 김규식, 조소양, 엄항섭, 조완구, 최홍오...

정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란 관계없이, 과거를 불문하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통일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당시 쑥섬회의에 참가하였던 참가자들의 이름이 통일전선탑에 영성되도록 새겨지게 되었다.

어디 이들뿐인가.

최덕신, 최홍희,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인생전환을 하여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누린 애국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녕 아버지수령님의 품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안아주고 통일애국의 길로 내세워주는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었다.

오늘도 력사의 중경자언양높이 솟아 빛나는 통일전선탑은 온 겨레의 마음속에 절세위운을 따르는 길에 민족 단합과 조국통일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서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 통일을 불러

### 겨레의 사랑을 받는 통일음악가로 (1)



제 38 차 윤이상음악회

인간은 자기의 재능을 무엇에 위하여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겨레의 추억속에 담긴 삶으로 영생하는 것인가.

이에 옳은 대답을 주는 것이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의 아름다운 삶이다.

윤이상 선생은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에서 몰락한 양반가정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린시절 감수성이 유별나게 예민했던 그에게 있어 음악은 생의 첫 싹으로 움터났다.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과 푸른 물결, 파도소리들이 마치도 그에게는 선블로 여겨졌다.

하기에 윤이상 선생은 음악 시간을 그리도 좋아했고 이곳에 사는 바이올린을 켜는 청년에게서 악기도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다.

나도 작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고 선생은 13살부터 처음에는 간단한 곡을,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곡을, 그리고는 몇개의 악기를 섞한 경음악과 같은 것도 썼다.

음악공부에 집착하는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고운 눈으로 불리 만무하였다.

그때는 음악가 하면 궁정악, 화가는 화가라고 천대받던 시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공부를 못하게 했고 바이올린소리가 듣기 싫다고 악기를 마당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윤이상 선생은 끝내 자기의 희망을 꺾고 청운의 꿈을 안고 고루한 봉건의 구속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왔다. 서울과 일본의 오사카, 도쿄도 방황하며 음악공부를 하였다.

음악에 대한 동경이 가슴에 키질을 하던 그 나날 그는 식민지민족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더욱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하고 낮설고 물결은 일본땅에 흘러와서 인간이하의 노예생활을 하며 살고있는 동포들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목격하면서, 또 그 자신이 민족적차별을 받으면서 점차 사회정치적문제에 눈뜨게 되었다.

쌓여진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은 그의 인생의 나무에 《정지》라는 두번째 가지가 뻗어내리게 했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우리 민족 작곡한 가곡이 죄로 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선생은 병원에서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선생은 마음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칠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순간이었다. 해방후 남조선에는 미군이 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고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앞잡이로 서울에 들어와 살판쳤다.

당시의 혼란된 정치현실에서 실망을 금할수 없었던 선생은 음악에 전념하리라 마음다지었다.

본사기자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작곡할 때나 항시 자신이 미흡하다는 것을 통감했고 견문세계가 좁은 것을 괴로워했다.

하여 선생은 1956년 류학길에 올라 빠리 국립음악원에 들어갔다.

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선생은 세계적수준의 작곡가를 목표로 음악공부에 심신을 다 바쳤다.

고생 끝에 락이 온다고 초지의 길을 걸은 선생은 드디어 성공의 탑에 닿았다.

선생은 1958년에 《피아노를 위한 5개 소품》을 작곡하였다. 그 작품은 베베를란드의 국제음악주간에 입선되었고 1959년 9월 초연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선생은 1960년에 관현악곡 《바리》와 대관현악곡 《교향악적정경》을, 1961년에는 현악합주곡 《교향적음악》, 1962년에는 실내관현악 《락양》, 1963년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 《가사》, 클리트와 피아노를 위한 곡 《가락》 등 각각각색의 수많은 곡을 창작하였다.

그중 피아노를 위한 곡 《가락》은 오랜 기간 국제콩쿨무대에서 지정곡으로 선정되었으며 또 연주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그의 다른 곡들은 현재까지도 음악대학들에서 시험곡으로 되고있다.

서울과 일본, 프랑스, 서부도이칠란드(당시)로 방황하던 선생은 이렇게 세계각국에 떠돌았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위대한 전승세대 드리는 숭고한 경의가 온 나라에 굽이치던 전승절의 그날 대양 건너에서 한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워싱턴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불귀의 객이 된 미군고용병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언젠가 어느 한 출판물에서 보았던 미군고용병의 조선전쟁 《경험담》이 나의 뇌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보고 총부리를 겨누면서 나는 참다운 자부심을 느낀다. ... 내가 면바로 판자노리를 겨누며 나의 발사의 결과로 두 개 팔이 날아가고 안공에서 눈알이 쏟아질 때 나는 더없이 가장 멋있던 사격을 했다는 것을 안다. ...》

분노의 아픔에 심장이 조여든다.

이른바 《추모의 벽》에는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 안된다 명명해 살인마 위치의 이름도 새겨져있을 것이다. 《북조선에는 쓸어도 걸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의 명령에 따라 적십자표식이 있는 병원들에도 서슴없이 대형폭탄을 떨구고 이어 방공호로 뛰어가 아이들까지 쫓아 기총소사를 해대며 회회락락대던 미군공중비적들의 이름들도 새겨져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새겨져있을 것이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찢어죽이고 태워죽이고 생매장해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다 못해 임신부들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어 밟아죽인 미군살인귀들의 이름들이...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릉유

하고도 성차지 않아 철부지 소녀들까지 집합한 미군야만들과 모란봉 영명사며 정방산 성불사의 불상들을 비롯한 귀중한 유물들을 로략질해가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참혹하게 파괴해버린 날강도들의 이름들이...

비단 공화국북반부에서만 있었던가.

지금도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72년전 7월의 그날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터져나오던 처참한 비명소리들이.

피난민들의 머리우에 폭탄을 쏟아부고 기총사격을 가

고했다.고 들이대자 야수들은 (피난민이라도 모두 죽이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고 빈정거렸다. ...사람들은 그때에야 미군들이 우리 상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상 죽이는것을 알고 필사의 탈출을 시작하였다.

바로 그자들, 로근리에서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참극》을 감행한 미기갑사단 77대 인강백정들의 가증스러운 이름들도 《추모의 벽》에는 버젓이 새겨져있을 것이다.

꽃송이를 들고 《추모의 벽》을 찾는 미국인들은 생

히 여기는 온 세상의 정의인들에게 있어서 잔악무도한 전범자들의 이름으로 얼룩진 《추모의 벽》은 미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분노의 벽으로, 저주의 벽으로 안겨오는 것이다.

무엇때문인가? 어찌하여 미국은 정전이 된지 70년이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 저들의 고용병들을 《참정용사》로, 《전쟁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른바 《추모의 벽》을 세우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단지 죄악에 찬 저들의 과

졌는가.

듣건대 《추모의 벽》에는 조선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카투사》(미군부대에서 근무한 남조선피괴군)들의 이름들도 새겨놓았다. 한다.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나면 《한미협맹》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남조선피괴들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몰겠다는 미국의 흑심이 력력히 드러나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모의 벽》을 가리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극구 령찬하는 윤석열적제파당의 작태는 얼마나 가련한가.

하나 우리 공화국을 유린하려 광분하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려는 격이

## 수필 《추모의 벽》에서 울리는 장송곡

각해본적이 있느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조선전쟁에 나갔던 저들의 혈육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몸서리치는 만행들을.

무너진 담벽과 불붙는 집속에서 들려오던 아녀자들의 울부짖음소리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젖을 찾던 첫머리의 울음소리들, 아이를 찾다가 그가 타 죽어가고 엄마를 찾다가 간이 말라 죽어간 신친의 400여니들과 102어린이들의 피라던 참상을 미국인들은 단 한번이라도 떠올려본적이 있느냐?...

실로 조국해방전쟁은 인간과 야수의 대결이었다.

인류의 량심이 준렬히 선 고려했듯이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거늘 현대미술의 거장이라 일컫는 프랑수아가 베까소도 《조선에서의 학살만행》이라는 그림을 그려 미군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단죄하지 않았던가.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량심을 소중

거를 미화본식해보려는 가당치 않은 력사의 덧칠인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쪽에서 때없이 울려오는 폭음과 총성이 우리의 귀전을 때린다. 남조선피괴들을 우리들의 군사적대결로 떠밀면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각각색의 전쟁연습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는 미국의 망동이 우리의 가슴을 의분으로 끓게 한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바로 그때문이다. 조선전쟁에서 막음을 떨친 어제날의 고용병들처럼 오늘의 미군인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서슴없이 조선의 평화로운 거리와 마을들에 폭탄을 퍼부으려고, 조선의 너인들과 아이들에게도 주저없이 총부리를 겨누고 추호의 망설임없이 살인마가 되라고 백악관은 워싱턴의 한복판에 떠들썩하게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

라 해야 할 것이다.

《추모의 벽》에는 뚜렷이 새겨져있을 것이다. 1211고지를 삼켜보려다가 《함정포》의 무주공흔이 돼버린 고용병들의 이름들이, 오산에서와의 군사적대결로 떠밀면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각각색의 전쟁연습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는 미국의 망동이 우리의 가슴을 의분으로 끓게 한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바로 그때문이다. 조선전쟁에서 막음을 떨친 어제날의 고용병들처럼 오늘의 미군인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서슴없이 조선의 평화로운 거리와 마을들에 폭탄을 퍼부으려고, 조선의 너인들과 아이들에게도 주저없이 총부리를 겨누고 추호의 망설임없이 살인마가 되라고 백악관은 워싱턴의 한복판에 떠들썩하게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

라 해야 할 것이다.

《추모의 벽》에는 뚜렷이 새겨져있을 것이다. 1211고지를 삼켜보려다가 《함정포》의 무주공흔이 돼버린 고용병들의 이름들이, 오산에서와의 군사적대결로 떠밀면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각각색의 전쟁연습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는 미국의 망동이 우리의 가슴을 의분으로 끓게 한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바로 그때문이다. 조선전쟁에서 막음을 떨친 어제날의 고용병들처럼 오늘의 미군인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서슴없이 조선의 평화로운 거리와 마을들에 폭탄을 퍼부으려고, 조선의 너인들과 아이들에게도 주저없이 총부리를 겨누고 추호의 망설임없이 살인마가 되라고 백악관은 워싱턴의 한복판에 떠들썩하게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

장수봉

